

['안나' 스크립트]

/감독 극본 이주영

-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비롯된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며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여자 '유미'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

인물	대사
[현주]	유미야, 세상엔,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만약 안 되는 게 있다면 혹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보자. 야, 아니야, 실망하지 마. 아직 시간 있어. 너 머리 좋잖아. 아니면 그냥 남편한테 털어놓고 좀 달라고 해. 내가 연락해줄까? 나 인내심 없는 거 알지? 시간 약속 지켜.

- 이유미/이안나 (배수지)
이 이야기의 주인공.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된 여자. 가난한 아버지와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녀는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많았다.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고단한 삶에 지쳐가는 이유미에서,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이안나의 모습으로 변신한다.
- 이현주 (정은채/아역: 고소현)
유미(안나)의 전 직장 상사. 타인에 대한 배려도 악의도 없이, 오직 자신의 우월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'마레 갤러리'의 작은 이사다.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다녀온 후 아버지가 소유한 갤러리를 함께 운영한다. 말단 직원이었던 유미가 전혀 다른 모습의 안나가 되어 나타나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.